

▶▶ 인터뷰 -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7월 1일 출범했다.

후반기 의회를 이끌 문승우 의장(군산4·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한 만큼 보다 확대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의회가 할 일이 많다"며, "전북 뭉치를 챙기는데 의회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례 발굴 관련, 정부 정치권에 전북 목소리 전하는 일에 앞장 설 것  
의원 정수 확대 등 위해 의원회관 신축 고려해야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



Q.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늘 도의회를 응원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자리에 앉은 만큼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후반기 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가 성공적인 특별자치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Q. 말씀하신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원년입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요?

-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습니다. 책임과 사명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더불어 추가 특례와 민생조례를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일도 하겠습니다.

특히, 특례 발굴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북 뭉치를 챙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Q.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소멸의 과제가 당면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권의 실효성

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담당하고 자신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힘까지도 모아내는 통합과 협치의 의회가 되겠습니다.

Q.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실 계획이신지요.

-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도민과의 소통과 접근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준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은 인구가 전북보다 적지만 도의원이 49명으로 우리 전북보다 9명 많습니다.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더하고, 의회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거나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의원정수 확대와 상임위원회 확충 등을 위해서는 의원회관 신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원회관은 의정용도만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Q. 공약에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도 강조하셨습니다.

-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는 지방의회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지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법에 의회 관련 특례를 발굴해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의 연대 등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의회 사무처에 3급 국장 자리를 만들고, 의원들의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전국의 지방의회와 연대해 방법을 찾을 작정입니다.

Q.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두 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12대 전반기 의회도 이러한 원칙 아래 협치와 견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기에도 기본적으로 도민 행복과 전북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방법론으로 감사위원회를 의회로 이관하는 것과 교육청 직원 의회 파견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요?

-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의장이 드러나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들이 더 돋보이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들이 담당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전북발전이라는 큰 힘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뒤에서 전폭적으로 돕겠습니다.

Q. 앞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 도민만 바라보며 늘 현장에 있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를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늘 도민과 공감하고 매사에 공정하게 임해 공신력 높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호 기자

## ▶ 문승우 의장이 걸어온 길

### 적극·진취적 자세로 연구하는 의원상 구현 중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964년 전북 군산 출생으로 군산 중앙고와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대학 생선학과 학사졸업 후 군산대 대학원 체육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11대와 12대 연속으로 군산 제4선거구에서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장을 역임했으며, 제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장에 선출되었다.

문 의장은 타고난 체육인으로 군산시 체육회 부회장, 9대 태권도협회 회장, 전북체육회 이사, 군산시 경기단체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북산악연맹 고문, 전북체육 역사기념관 건립 TF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

는 문 의장은, 과거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냈고, 금강라이온스 제26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군산협의회 강생보호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전북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전북본부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운동과 후학 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을 역임했으며, 호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한 세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자세로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04년 군산 시민의 장 체육장을 수상받았고, 2023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훈을 받은 바 있다.

## “방미외교단 활동, 동북아 정세 대응 위한 야당 외교의 첫 시동”

민주 정동영 의원

지난달 23~29일 미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방미외교단은 1일 “미국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이 불러 밀착 관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전주병)실에 따르면, 정 의원 등을 포함한 외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간 다양한 해법 모색에 공감했으나 한미 자체 노력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4자 협



1일 더불어민주당 방미외교단 성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

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렇게 말했다.

외교단은 방미 기간 미국 민주당·공화당 의원을 면담했으며 국무부 인사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평화 위기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방미외교단의 활동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야당외교의 첫 시동”이라며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는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민생 그 자체이며 이번 첫 야당외교를 시발로 22대 국회의 의원외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성숙한 자치권 확보·전북 뭉치기 앞장”

전북자치도의회 의장단 호국원 참배로 활동 시작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1일 국립임실호국원 참배로 임기를 시작했다.

문승우 의장과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최희열 기획행정위원장,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진형석 교육위원장,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난이 대변인, 김양원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임실호국원에서 헌화·분향하며,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문승우 의장은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1일 국립임실호국원 참배로 임기를 시작했다.

며, 숭고한 정신을 이어 도민의 삶에 보듬고 발전하는 전북을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

도가 출범한 만큼 성숙한 자치권 확보와 전북 뭉치를 챙기는데 의회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외나무다리서尹 대통령과 ‘맞짱’ 뜨는 최고위원 될 것”

민주 이성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 출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했던 동기”인 점을 강조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이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예리한 도구로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친 성격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방식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공정을 내세운 기만술로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은 후 자기편은 수사하지 않고 결핍하면 불공정한 압수수색으로 제 맘에 안드는 상대편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운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임명권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여 집권한 윤석열 대동

령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선 후 2년이 넘도록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함께 아직도 주야장천 정치수사와 정치기소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을 뿐, 검사 시절의 무도한 행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제대로 한번 맞짱뜨겠다.”고 했다.

이어, “민심동일체가 되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동일체’가 되어 당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고 합주해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서난이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대변인에 임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일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을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대변인에 임명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정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의회 대변인은 도민과 의회를 잇는 중요한 자리”며, “도민께 의회 활동을 제대로 알리고, 의회 입장을 도민과 언론에 바르게 전달하는 등 의회 위상을 높이



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이나 이익과 관련해 도의회와 도민의 입장을 대변,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대변인은 제10·11대 전주시의원을 지냈으며, 제12대 도의회 전반기에 농산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대변인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이만호 기자